어린이 눈높이 맞춘 연령별 시리즈 정착

책 선택에 유용한 지침…개인차 등 자녀의 독서수준 고려해야

요즘 서점에 나오는 어린이 책 가운데는 연령이나 학년 표시를 달고 있는 책이 많다. 아예 제목에 학년 표시까지 한 책들도 있어서 책을 사주는 어른들에게는 유용한 지침이 되고 있다. 특히,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유아용 책의 연령표기는 책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들의 언어발달 수준이나 이해 정도를 고려한 연령별·단계별 시리즈물이 정착되고 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독서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국내 창작물의 절대 부족이나 개인차를 무시한 연령 제시 등 부작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테마별·연령별로 더욱 세분화 필요

이같은 연령별·단계별 출판을 정착시킨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90년대 들어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여주는 어린이 책 출판사들이다. 특히 비룡소가 96년부터 펴낸 〈나는 책읽기가 좋아〉 시리즈는 연령에 따라 단계를 나눠 책등과 표지에 표기함으로써 단계별·연령별 독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일반 독자에게 널리 알렸다.

시리즈를 기획하고 출간을 주도했던 박상희 대표는 "우리나라 어린이 독서과정에는 중간중간 이가 빠져 있다. 한글을 더듬더듬 읽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입학 직전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읽힐 책이 없다"고 말한다. 단계별 시리즈를 6·7세 1단계, 초등학교 1·2학년 2단계, 3·4학년 3단계로 구성한 것도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이나 이해 정도를 고려한 독서교육이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을 좋아하는 어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제까지 어린이 독서는 몇 년 후를 내다보며 넉넉한 옷을 사주듯,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웃도는 책을 사줘 일찌감치 독서에 흥미를 잃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연령별·단계별 시리즈의 정착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독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는 게 안팎의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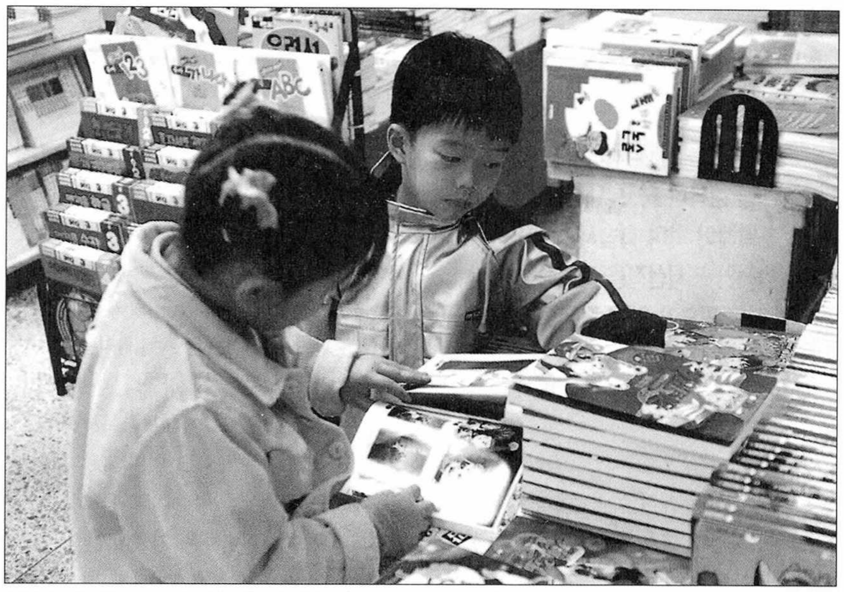
연령별·단계별 시리즈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미 많은 출판사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림책의 주요 독자층인 유치원생이 볼 수 있는 그림책을 표방, 3년 전부터 보림(대표 권종택)에서 펴내기 시작해 지금까지 34권을 출간한 〈지크〉 시리즈 역시 최근에 연령 표기를 시작했다. 박상용 주간은 "독자층을 4~7세에서 0~3세로 옮기면서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시작했다"며 과거의 책들도 재판에서는 연령을 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계절(대표 강맑실)은 테마·영역별 구분을 표시함으로써 나이나 학년에 따른 통상적인 구분과는 차별적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책 시장에서 소리없는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똥〉 시리즈는 유아들이 흥미로워 하는 '똥'을 테마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준다. 〈암소 무〉, 〈친구와 함께 읽는 그림동화〉 시리즈는 놀이방이나 유치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이 '우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논리랑 놀자〉는 아이들의 '논리력·사고력'을, 〈보아요〉 시리즈는 '관찰력'을 북돋는다. 사계절의 박찬수 대리는 "글자수 같은 단순한 척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단계별 시리즈가 테마별·영역별로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외국동화책 일색 국내 창작물 절대부족

예전에도 연령별 시리즈가 아주 없지는 않았다. 유아도서출판사로 긴 연륜을 가진 프뢰벨은 이미 3~7세의 유아들은 물론 생후 몇 개월짜리 영아용 시리즈물까지 펴내왔다. 하지만 최근 단계별·연령별 시리즈는 전집이 아닌 단행본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시리즈물과 큰 차이가 난다. 같은 이름으로 묶여 있다 하더라도 한 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낱권으로 살 수 있다.

이처럼 단행본 시리즈물이 활성화된 데는 다양해진 구매자들의 기호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보림의 박상용 주간은 "이제 예전처럼 전집물을 따라 사는 소비행태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며 달라진 구매패턴을 단계별 시리즈물 정착에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한다.



연령이나 학년별 표시를 한 어린이책들이 책선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책도 세분화하여 본격적인 다품종 소량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여기에는 어린이 전문서점의 활성화, 어린이도서연구회 같은 사회단체가 주도한 동화읽기 모임이 사회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어린이 책만을 기획하고 집필하는 전문기획 집단들의 역할도 한 몫을 했다. 수용자나 공급자 모두 단계별·연령별 시리즈에 대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로 늘 첫손에 꼽히는 것이 우리 정서를 대변하는 국내 창작물이 절대부족하다는 점. 비룡소나 보림, 사계절이 펴낸 시리즈들은 거의 외국 동화와 그림책이다. 출판사 실무자들은 "단계별 그림책은 프뢰벨, 몬테소리, 피아제 같은 외국학자들이 이론화한 어린이 성장단계를 모델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한다.

하지만 국내 창작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많은 출판사들이 새로운 기획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림은 1년여의 기획기간을 거쳐 0~4세를 대상으로 한 〈나비잠〉 시리즈를 조만간 내놓는다. 0~2세까지는 이야기 흐름보다 사물을 인지하는 내용으로, 3~4세는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나 올바른 생활습관 기르기 등으로 꾸민다. 비룡소의 박상희 대표는 "국내물을 의도적으로 배척한 적이 없다"며 좋은 작품이라면 언제든 기꺼이 펴내겠다는 생각을 밝힌다. 어린이 책 시장에 새로 뛰어들려는 돌베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작물을 주로 펴내온 여명 등도 단계별 책읽기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다.

국내 창작물의 부족은 전문성 문제와 연결된다. 어린이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들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전문작가들이 없어 출판사간에 차별성이 없고, 시장경험에만 의존한 상식적인 책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수용자들은 선택기준이 뚜렷한 단계별 시리즈가 자녀 수준에 맞는 독서교육을 돕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단계·연령'에 회의를 표시한다.

어린이도서연구회의 곽정란 사무총장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표시된 연령이나 단계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면 오히려 독서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며 책 발간 전에 출판사에서 충실한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도록 제안한다. 또 책을 구입하는 부모는 출판사에서 표기한 연령은 일반적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녀의 흥미와 독서수준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시리즈물이 주로 저연령층에 몰려 있어 독서안정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읽을 책이 의외로 적다는 점도 문제다. 학습에 대한 관심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탓이겠지만 독서가 입시와 무관한 연령와 단계까지만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현주 기자